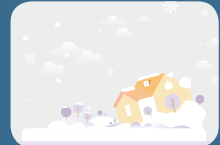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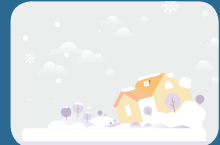


재난방송 언어 지침서



재난방송 언어 지침서



자연 재난방송 언어 공통 지침

우선순위	정보 유형		제시 내용
1	재난 발생 상황	재난 발생 지역	• 행정 구역상의 명칭
		재난 발생 시각	• 재난 발생 시각
		재난 수치 정보	• 지진 규모/태풍 규모/기온/적설량/강우량 등 재난 상황을 알 수 있는 수치
2	기상 특보 발효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 특보(주의보, 경보) 발효 지역 • 기상 특보(주의보, 경보) 발효 시간
3	사고 및 피해 상황	사고 상황	• 각종 사고 상황
		피해 상황	• 인명, 재산 등의 피해 상황
		교통 통제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제 지역 및 구간 • 구체적인 교통 통제 정보 • 조심해야 할 지역
		주민 대피 상황	• 피해 지역의 주민 대피 상황
4	향후 기후 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기상 예보 • 자연 재난 지속 기간 예보
5	재난 발생 시 대처 방법	행동 요령	• 여러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 대처 요령
		대피 정보	• 재난 발생 지역의 구체적인 대피 장소
		기관의 재난 대처	• 지자체나 재난 대응 기관의 조치 내용



1 재난 발생 상황

재난 발생지, 재난 발생 시각 등 재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수치를 우선적으로 보도한다.

2 기상 특보 발효 상황

태풍, 호우, 홍수, 한파, 폭설, 폭염 등 기상 특보(주의보, 경보) 기준이 정해져 있는 자연 재난은 기상 특보 발효 상황을 함께 보도한다.

3 사고 및 피해 상황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및 피해 상황을 보도한다.

4 향후 기후 예보

자연 재난은 특성상 수일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대비할 수 있도록 향후 기상 예보와 재난의 예상 지속 기간 등을 보도한다.

5 재난 발생 시 대처 방법

재난 발생 예상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난 발생 지역의 주민이 취해야 할 행동 요령과 대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소 정보를 보도한다. 지자체나 재난 대응 기관의 대처 정보도 보도한다.

1 재난 발생 상황

	제시 내용	보도 예시
재난 발생 지역	행정 구역상의 명칭	<p>태풍·호우·홍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풍 콩레이는 통영에 상륙한 뒤 부산을 관통한다고 합니다. (한국방송 뉴스 특보, 2018. 10. 6.) <p>지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북 경주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문화방송 뉴스데스크, 2016. 9. 12.) <p>한파·폭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춘천과 화천, 철원 등 강원 영서 지역에는 오늘 밤사이 최고 8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제이티비시 뉴스룸, 2018. 1. 22.)
재난 발생 시각	재난 발생 시각	<p>지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늘 저녁 7시 44분에 경주와 울산 등 영남 지방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감지됐습니다. (한국방송 특집 뉴스9, 2016. 9. 12.) 오늘 저녁 8시 43분과 8시 44분 경주 부근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강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한국방송 특집 뉴스9, 2016. 9. 12.) <p>한파·폭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 영서 지방의 눈은 오후 4시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이티비시 뉴스룸, 2018. 1. 22.)
재난 수치 정보	태풍 규모/기온/적설량/강우량/지진 규모 등 재난 상황을 알 수 있는 수치	<p>태풍·호우·홍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당 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짧은 시간에 집중됐습니다. (한국방송 뉴스 특보, 2017. 7. 23.) <p>폭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늘 강원도 홍천 최고 기온이 41도를 기록해서, 우리나라가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온도를 보였습니다. (한국방송 뉴스9, 2018. 8. 1.) <p>지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한국방송 뉴스 특보, 2017. 11. 15.) <p>한파·폭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식적으로는 지금까지 춘천에 내린 눈의 양은 4cm로 기록됐습니다. (제이티비시 뉴스룸, 2018. 1. 22.) 온종일 영하권을 맴도는 강력 한파가 닷새째 몰아친 오늘, 강원 삼척은 영하 23.9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문화방송 뉴스데스크, 2017. 1. 24.)

2

기상 특보 발효 상황

제시 내용

보도 예시

기상 특보
(주의보, 경보)
발효 지역

태풍·호우·홍수

- 진주와 남해, 고성 등 5개 시군에는 태풍주의보가 내려졌고, 창원과 통영 등 8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한국방송 뉴스 특보, 2018. 10. 6.)

- 현재 광주와 전남 전 지역에는 태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남해 서부 먼 바다에는 태풍경보가, 남해 서부 앞바다에는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한국방송 뉴스 특보, 2018. 10. 6.)

한파·폭설

- 충남과 전북, 제주 산간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폭설과 한파는 곳에 따라 금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에스비에스 8시 뉴스, 2018. 1. 9.)

기상 특보
(주의보, 경보)
발효 시간

태풍·호우·홍수

- 부산은 어제 오후 9시부터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국방송 뉴스 특보, 2018. 10. 6.)

-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서 기습적인 게릴라 폭우가 이어지면서 조금 전 오후 8시 반에는 서울 중랑천에 홍수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제이티비시 뉴스룸, 2018. 8. 28.)

- 오전 8시 현재 제주와 여수, 김해 공항은 돌풍특보와 태풍특보가 동시에 내려져 있고요, 새벽 3시를 기해서 김포 공항, 대구, 양양 공항 에도 오늘 오후까지 태풍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한국방송 뉴스 특보, 2018. 8. 24.)

한파·폭설

-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엔 눈과 함께 오늘 밤 늦게부터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문화방송 뉴스데스크, 2017. 1. 21.)

- 기상청은 앞서 오늘 자정을 기해 강원 영서 지역에 한파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제이티비시 뉴스룸, 2018. 1. 22.)

- 오후 4시 30분을 기해 대설주의보가 발령된 화천에는 5cm, 철원은 6cm의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제이티비시 뉴스룸, 2018. 1. 22.)

3

사고 및 피해 상황

제시 내용

보도 예시

사고 상황

각종 사고 상황

태풍·호우·홍수

-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와 주택 상가 등이 물에 잠겨 소방 당국이 50여 건의 배수 작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한국방송 뉴스 특보, 2018. 10. 6.)

폭염

- 낮 기온이 41도를 기록한 강원도 홍천에서는 폭염으로 고속도로 콘크리트 포장에 팽창하면서 파손돼 도로 공사가 긴급 보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문화방송 뉴스데스크, 2018. 8. 1.)

한파·폭설

- 전북 완주와 전남 순천을 잇는 고속도로에서는 트레일러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길을 막아 일대 교통이 1시간 넘게 통제되는 등 전북에서만 160여 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접수됐습니다.(에스비에스 8뉴스, 2018. 1. 9.)

피해 상황

인명, 재산 등의 피해 상황

태풍·호우·홍수

- 오늘 오전 6시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공식 집계를 보면, 전남 고흥군에서 아파트 담장이 붕괴되어 한 명이 다쳤는데요, 이번 태풍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실종자 1명, 부상자 2명으로 늘었습니다.(한국방송 뉴스 특보, 2018. 8. 24.)

폭염

- 폭염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강원도에서 폐사한 가축만 5천여 마리에 이릅니다.(한국방송 춘천 뉴스9, 2018. 8. 1.)

한파·폭설

- 이 한파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했고 저체온증으로 응급 치료를 받는 일까지 늘고 있습니다. (중략) 어제 하루 20명이 저체온증으로 응급실을 찾았고 그제는 10명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문화방송 뉴스데스크, 2018. 1. 12.)

교통 통제 상황

- 통제 지역 및 구간
- 구체적인 교통 통제 정보
- 조심해야 할 지역

태풍·호우·홍수

- 제가 있는 마포구 불광천도 8시 20분부터 통행이 완전히 통제된 상태입니다.(제이티비시 뉴스를, 2018. 8. 28.)
- 이번 비로, 지리산 국립 공원 등 전국 12개의 국립 공원과 316개 탐방로도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한국방송 뉴스 특보, 2018. 10. 6.)
- 서울에서도 폭우로 도로 일부 구간이 침수돼 오전 9시 이후로 서대문구 증산 지하 차도와 강서구 개화 지하 차도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이 통제되었습니다.(한국방송 뉴스 특보, 2017. 7. 23.)

교통
통제
상황

- 통제 지역 및 구간
- 구체적인 교통 통제 정보
- 조심해야 할 지역

- 특히 중랑천 일대는 상습 침수 지역으로 분류돼 인근 주민들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제이티비시 뉴스룸, 2018. 8. 28.\)](#)

한파·폭설

- 호남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는 바람에 광주와 군산 공항에서는 이착륙 하려던 항공기 17편이 결항했습니다. [\(에스비에스 8시 뉴스, 2018. 1. 9.\)](#)

주민
대피
상황피해 지역의
주민 대피 상황

태풍·호우·홍수

- 어제부터 집중 호우가 이어진 경기 연천군에서는 남방 한계선 인근의 임진강 필승교 수위가 한때 2m를 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야영객 대피가 진행되는 준비 단계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한국방송 뉴스 특보, 2017. 7. 23.\)](#)

폭염

- 정전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고 있고, 케이티엑스(KTX) 에어컨이 고장 나고, 지하철 스크린 도어도 한때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중략) 오후 세 시쯤, 고양 행신역을 출발해 포항으로 향하던 케이티엑스(KTX) 열차 6개 객실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승객 985명이 오송역에서 내려 비상 대기 열차로 갈아탔습니다. [\(문화방송 뉴스데스크, 2018. 8. 1.\)](#)

지진

- 포항의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건물이 무너질 것 같은 진동 때문에 대피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방송 뉴스 특보, 2017. 11. 15.\)](#)

4

향후 기후 예보

제시 내용

보도 예시

- 향후 기상 예보
- 자연 재난 지속 기간 예보

태풍·호우·홍수

- 서울에 내리는 비는 오늘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에 완전히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방송 뉴스 특보, 2018. 8. 24.\)](#)
- 기상청은 오늘 오전까지 충북 지역에 20~70mm, 많은 곳은 12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한국방송 뉴스 특보, 2017. 8. 1.\)](#)

폭염

- 적어도 오는 주말까지는, 길게는 다음 주 초까지 계속해서 더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이티비시 뉴스룸, 2019. 7. 5.\)](#)

한파·폭설

- 매서운 한파는 모레인 월요일에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은 영하 12도까지 뚝 떨어지는 등 올겨울 최강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문화방송 뉴스데스크, 2017. 1. 21.\)](#)

5

재난 발생 시 대처 방법

	제시 내용	보도 예시
<div>행동 요령</div>	<p>여러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 대처 요령</p>	<p>태풍·호우·홍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상 수조 양식장에서는 강풍에 대비해 지붕 등 시설물을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정전과 단수에 대비해 깨끗한 사육수를 충분히 저장해 두고 산소 공급 장치와 비상 발전기 가동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한국방송 뉴스 특보, 2018. 10. 6.) <p>폭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이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자주, 의식적으로 마셔주는 게 좋고요, 땀으로 염분 등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온 음료를 섭취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한국방송 뉴스특보, 2018. 8. 1.) <p>지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건물 벽이나 바닥에 금이 간 경우에는 가스 배관이나 수도관 등이 부서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스와 전기, 수도 등의 공급을 차단하고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방송 뉴스특보, 2017. 11. 15.)
<div>기관의 재난 대처</div>	<p>재난 발생 시각</p>	<p>태풍·호우·홍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심천 주변 저지대 가구에는 대피 명령이, 금강 미호천에는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에스비에스 12시 뉴스, 2017. 7. 16.) <p>폭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에는 행정 기관의 살수차가 등장했고, 거리에서는 무료로 생수 나눠주기 행사도 열렸습니다. 소방관들은 골목골목을 찾아다니며 수시로 물을 뿌렸습니다. (한국방송 춘천 뉴스9, 2018. 8. 1.) <p>지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에서 종합재난안전대책 가동반을 운영하고 있고 (중략) 관련 부처가 지진 상황 종료 때까지 비상 근무 체제를 유지하도록 비상 훈련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방송 뉴스특보, 2017. 11. 15.) <p>한파·폭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들은 한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내 곳곳에 추위 쉼터를 만드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문화방송 뉴스데스크, 2018. 1. 12.)

정보 우선순위에 따른 재난방송 예시

※ 예시에 적합한 각종 수치, 날짜, 지역 등은 모두 허구로 작성되었습니다.



폭염 편



기록적인 폭염, 총주 42도까지 올라

정보 유형

진행자

사상 최악의 폭염이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홍길동 기자가 전합니다.

기 자

네,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116년 만에 국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충북 충주의 기온은 42도까지 올랐고, 경북 상주는 41도, 강원도 인제는 40.5도까지 올랐습니다.

▶ 폭염 재난 상황(지역별 최고 기온, 최고 기온 경신 기록, 체감 온도)

진행자

홍길동 기자, 오늘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령되었나요?

기 자

네, 그렇습니다. 올해 첫 폭염경보는 충북 충주에 내려졌습니다. 폭염특보제가 시행된 것은 2008년부터이고요, 2018년에는 8월 5일, 2019년에는 7월 24일, 이렇게 점차 앞당겨지다가 올해는 7월 13일, 바로 오늘 첫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 폭염 특보 발효 상황

진행자

기록적인 폭염 속에 전국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홍길동 기자가 오늘 있었던 폭염 관련 사고를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무더운 날씨 탓에 에어컨, 선풍기 등의 전기 제품의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전력 과부하로 인한 정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전기가 끊겨 180여 가구 주민이 불편을 겪었고, 전주시에 한 아파트에서도 전기가 나가 주민들이 승강기에 30분 동안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폭염으로 콘크리트 포장에 팽창하면서 영동고속도로 일부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 사고 및 피해 상황(폭염 질환 발생, 사고 발생)

진행자

이번 더위는 언제까지 이어진다고 보면 될까요?

기 자

적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더위는 앞으로 장마 전선이 얼마나 발달하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더위가 조금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 제주도를 시작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한 차례 거센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향후 기후 예보

진행자 이번 달 온열 질환자가 급증했다고 들었습니다. 만일 더위로 인한 응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까?

기 자 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도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사람이 전국적으로 50명이 넘었고, 7월 들어서 400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오늘과 같이 폭염특보가 발령됐을 때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바깥에 있다가 갑자기 어지럽거나 힘이 없고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온다 싶으면 일단 냉방기가 가동되는 시원한 실내로 들어가서 체온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등에 얼음찜질을 하면 열을 떨어뜨리는 데에 효과적입니다. 각 소방서별로 폭염 구급대를 운영하고 있으니 온열 질환자를 목격하게 되면 자체 없이 119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폭염 질환 대비 및 대처 방법(폭염 질환 대비, 폭염 질환 대처, 기관의 폭염 대처)

진행자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더위 쉼터의 위치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지요?

기 자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 간편하게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에서도 '무더위 쉼터 위치'로 검색하면 쉽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무더위 쉼터 위치





태풍·호우·홍수 편



태풍 '마이삭' 제주도 상륙

정보 유형

진행자 태풍 '마이삭'이 한반도를 향해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홍길동 기자, 현재 태풍 진행 상황 알려 주시죠.

기 자 네, 저는 제주 서귀포에 나와 있습니다.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태풍 '마이삭'은 강풍 반경이 370m, 최대 풍속은 무려 초속 47m에 달하는데요, 사람이 날아갈 수 있는 수준의 위력입니다. '마이삭'은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 오후 4시경에 경남 거제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지금 화면을 보면 비도 상당히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 자 네, 이곳 제주는 아주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9호 태풍 '마이삭'이 서귀포에 상륙하면서 조금 전 새벽 5시에 제주 전 해상에 태풍특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요, 오늘 새벽까지 제주 전역에 4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진행자 비 피해가 상당하겠는데요?

기 자 네, 강한 비바람이 계속되면서 제주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제주시 애월읍에서는 도로 곳곳과 주택 10곳이 물에 잠겨 소방 당국이 밤새 배수 작업을 벌였습니다. 서귀포시 대정읍에서는 250여 가구가 정전되어 현재 복구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교통 통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 자 태풍에 뱃길과 하늘길이 모두 막혔습니다. 제주에서 목포와 완도 등을 오가는 50개의 항로 운항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제주 공항은 어제 저녁 6시부터 모든 항공편이 끊겼는데요, 태풍이 빠져나가는 오늘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다시 운항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한라산으로 올라가는 모든 등산로가 폐쇄되었고, 21개 올레길도 탐방 자제 권고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 태풍·호우·홍수 재난 상황(재난 지역, 태풍 세기 및 이동 경로, 태풍 이름)

▶ 기상 특보 발효 상황

▶ 동반되는 기상 상황

▶ 사고 및 피해 상황

▶ 교통 통제 상황

진행자 우리나라가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시점은 언제쯤이 되겠습니까?

기 자 기상청의 태풍 진로 예측에 따르면 태풍은 오늘 오전 제주를 지나 남해안을 따라 이동하겠습니다. 오후 4시경 경남 거제 부근에 상륙한 뒤, 오후 8시경 부산을 관통해 밤사이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진행자 네, 무엇보다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입니다.

기 자 태풍 ‘마이삭’의 상륙 예상 지점은 경남 거제입니다. 하지만 거제 외의 통영, 창원 등의 주변 지역에서도 재난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비상시 신속하게 대피하여야 합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는 강한 바람에 대비하고자 유리창에 신문지나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리창에 신문지나 테이프를 붙이는 것보다는 창문이 흔들리지 않도록 창틀에 신문지 등을 끼우고 잠금 장치를 잠가 단단하게 고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 향후 기후 예보

▶ 태풍·호우·홍수
재난 시 대비 및
대처 방법





지진 편



울산 5.4 규모 지진 발생

정보 유형

진행자

첫 번째로 전해 드릴 소식은 오늘 발생한 지진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3시 29분 울산에서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홍길동 기자를 연결해서 이번 지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진 발생 상황
(지진 발생지, 지진 규모, 지진 발생 시각)

기 자

네, 이번 지진은 3시 29분에 울산시 동구 북쪽 10km 지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멀리 서울에서도 지진을 느끼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지진이 발생한 깊이가 얕으면 멀리까지 진동이 전달되는데요, 이번 지진은 **상당히 얕은 8km 깊이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전국적으로 진동을 느꼈습니다. 포항에서도 진동을 느꼈고 특히 진앙과 가까운 지역 경주에서는 굉장히 큰 진동을 느꼈습니다.

진행자

큰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현재 울산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 자

진도 5.4면 굉장히 큰 지진인데요, **천만다행으로 별다른 인명, 재산 피해는 없었습니다.** 현재 울산 시민들은 대부분 정부 당국의 안전 수칙에 따라 건물 밖으로 나와서 대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지진은 강도가 매우 커서 약 7초 이상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집 안에서 그릇이나 창문이 흔들리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 사고 및 피해 상황
(사고 상황, 피해 상황, 주민 대피 상황)

진행자

추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요?

기 자

네, 그렇습니다. 이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도 예비 지진이 있었고요, 그 후 추가 지진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이 일어나기 약 20분 전인 3시 8분에 규모 2.6과 2.2의 전진이 두 차례가 있었고요, 이번 지진이 발생하고 약 30분이 경과한 4시에는 3.6의 여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5.4보다 약한 여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4와 같은 강한 지진이 같은 지역에서 다시 일어날 가능성은 적습니다.

▶ 여진 발생 가능성

진행자 지진이 또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대처 방법을 좀 알아 두어야 할 것 같은데요.

기 자 지진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출입문을 열어야 합니다. 지진이 계속되어 출입문이 뒤틀리게 되면 나중에 문을 열고 빠져나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한 지진이 발생한 뒤에 2차적으로 발생하는 피해 중 하나가 화재이므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가스레인지를 작동을 멈추고 가스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식탁이나 책상 밑으로 몸을 피해서 머리를 다치지 않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동이 멈추면 공터나 운동장으로 대피해야 하는데, 이때에는 승강기를 타지 말고 가급적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젖은 수건 등으로 입을 가리고 몸을 최대한 낮추어 이동해야 합니다.

▶ 지진 발생 시 대처 방법
(행동 요령, 대비 정보)

진행자 네, 무엇보다도 인명 피해 없이 지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대피 요령을 잘 숙지해 두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흥 기자, 원자력 시설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기 자 네, 다행히도 원자력 시설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전국의 원전 설비에 이상이 없으며 원전 가동의 중지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원전 사고 발생 가능성

○





한파·폭설 편



강력 한파 옛새째 이어져

정보 유형

진행자

하루 종일 영하권을 맴도는 한파가 옛새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강은 꽁꽁 얼어붙었고, 울릉도는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홍길동 기자가 전합니다.

기 자

울릉도는 옛새간 눈이 79cm나 쌓였습니다. 강원도 철원은 영하 23.9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서울도 밤새 5cm가 넘는 눈이 쌓였고, 영하 11.6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자정부터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역에 한파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진행자

사고 소식도 많이 들어왔는데, 전해 주시죠.

기 자

네, 서울은 밤새 내린 눈으로 출근길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수십여 대 차량이 눈 덮인 도로에 갇혔습니다. 폭설 때문에 교통 체증 시간은 평소보다 두 배가량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빙판길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서울춘천고속도로에서는 대형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일대 교통이 1시간 넘게 통제 되는 등 강원도에서만 140여 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접수됐습니다.

진행자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되어 있나요?

기 자

네, 오늘 밤사이 춘천과 화천, 철원 등 강원 영서 지역에는 최고 8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강릉과 속초 등 강원 영동 지역에는 최고 5cm 정도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대부분의 지역은 오늘 오후부터 모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진 뒤 내일 낮부터 기온이 차차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지자체별로 한파와 폭설로부터 시민들이 잠시나마 대피할 수 있는 추위 쉼터를 마련하고 있다고 하죠?

기 자

지자체들은 한파의 위험에 대비하고자 버스 정류장을 중심으로 추위 쉼터를 만드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온기충전소, 따스쉼터, 동장군대피소, 추위녹이소 등 그 이름도 다양합니다.

- ▶ 한파·폭설 발생 상황
(한파·폭설 발생지, 최저 기온, 적설량)
- ▶ 기상 특보 발효 상황

- ▶ 사고 및 피해 상황
(사고 상황, 피해 상황, 교통 통제 상황)

- ▶ 향후 기후 예보

- ▶ 기관의 한파·폭설 대처

진행자 홍길동 기자, 오늘 한강도 얼어붙었죠?

기 자 네, 연일 계속된 한파에 한강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강 결빙이 관측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1월 중순이나 되어야 어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는 이례적으로 빨리 얼었습니다. 기상청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몇새째 이어지면서 예년보다 결빙이 한 달 가까이 앞당겨졌다고 분석했습니다.

▶ 주요 강 결빙 상황





발행일	2020년 10월 30일
발행인	국립국어원장
발행처	국립국어원
기획·편집	공공언어과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775
디자인·인쇄	한국장애인상생복지회

